

세계민중 목판화전·佛 활동 김민정 초대전 등 다채

광주시립미술관 을 어떤 전시회 만날까

학정 이돈홍·中 류정성 초청전, 고 박은용 회고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기념 전라도 정도 1000년

조양규 탄생 90주년전·디아스포라 작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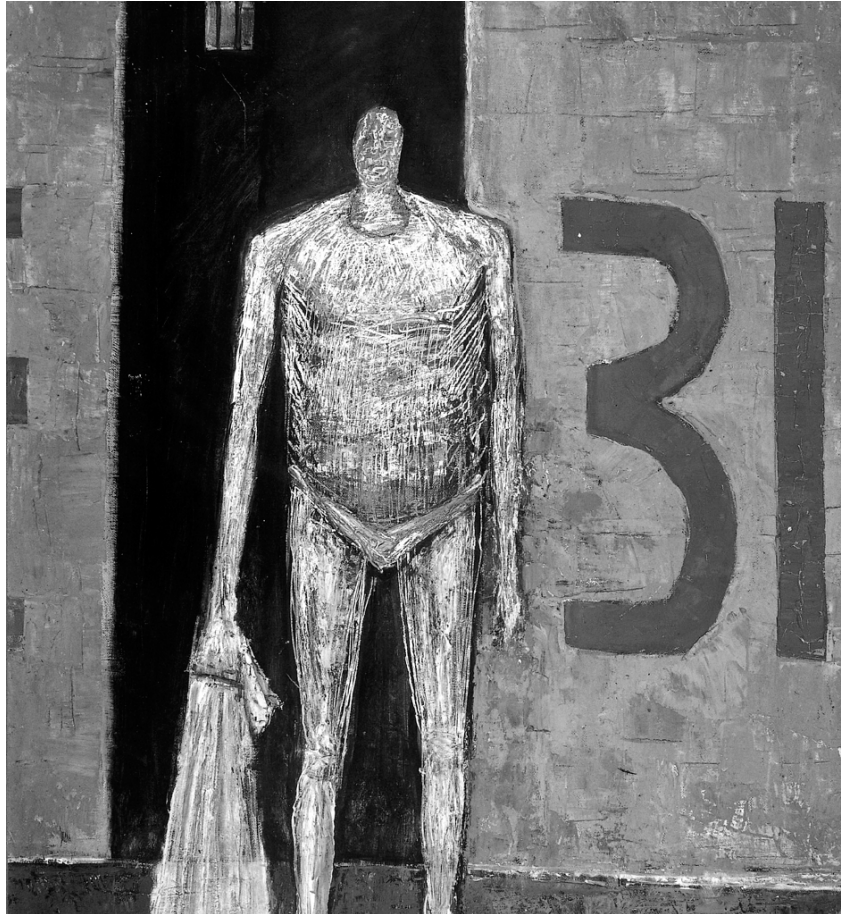
미술관 대학 운영, 아트숍·북카페 자료실 오픈



김민정 작가



학정 이돈홍 선생



조양규 작 '31년 창고-1955'

2018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에서는 어떤 전시회를 만날 수 있을까. 미술관은 올해 전시 키워드를 지역 작가 발굴육성과 지역 미술 아카이브 구축으로 잡고 다채로운 전시를 준비중이다.

올해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광주 출신 김민정 작가 초대전이 열리며, 타계 10주기를 맞은 고(故) 박은용 작가의 작품세계를 돌아보는 회고전도 갖는다.

▲다양한 기획전 개최

2018년 첫 기획전은 2월 열리는 중진작가초대전으로 1·2부로 나눠 진행한다. 1부는 전북도립미술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로 광주 출신 4명, 전북 출신 4명 등 현역 중진작가 작품을 만난다. 2부에서는 지역의 승장 작가를 초대해 기획전을 갖는다.

3~6월에는 '대한민국 명품전'이 열린다. 매년 개최되는 시립미술관의 대표적인 전시로 배병우, 아산 조방원 등이 참여했고 올해는 한국의 학정 이돈홍과 중국의 류정성 작가를 초청해 서예전을 갖는다.

오는 5~8월에는 1980년 5월 광주정신을 기념하는 민주인권 평화전으로 '세계민중 목판화전'을 기획, 아시아 지역 민중미술을 조명한다. 6~11월에는 '제12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을 기념하는 전시를 준비중으로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을 기념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기획중이다.

8~11월에는 '해외유명작가전'이 개최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지역 출신 작가를 초대하는 전시로 올해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김민정 작가가 선정됐다. 지난해 서울 현대화랑에서 대규모 초대전을 가지며 관심을 모았던 김 작가는 홍익대학교와 이탈리아 밀라노 브레라 미술학교 등에서 공부한 후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11월에는 '미디어아트 특별전'을 통해 미디어아트창의도시 대표미술관으로 지역 미디어아트를 육성하는 전시를 준비한다.

원로·작고 작가전으로 고(故) 석현 박은용(1944~2008)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진도 출신으로 자유로운 필치로 인간미 넘치는 작품을 선보였던 박작가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해외전시로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2018 문화도시광주전'을 진행, 광주와 프랑스 지역 작가 14명이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관이 자리한 중외공원에 빛조각을 설치하는 빛조각전도 열린다.

하정웅미술관은 3월부터 '하정웅 컬렉션 오일 전'을 진행하며 10~11월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슴 아픈 디아스포라를 상기하고 이산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디아스포라 작가전'을 준비중이다. 또 일본 리얼리즘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조양규 화백 탄생 90주년을 맞아 그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전시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밖에 두 차례의 미술단체 초대전,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빛 2018', 청년작가 초대전 등을 개최한다.

▲시민·작가들과 가까이

미술관 본관 1층 아트라운지에서는 지역작가 및 지역기획자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전시를 10회 걸쳐 진행한다. 또 미술문화의 대중화와 지역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매 계절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한다.

레지던스프로그램도 강화됐다. 북경창작센터를 비롯해 지난해 문을 연 '청년예술인지원센터'와 '국제창작센터' 등을 통해서도 작가 지원에 나서며 또 타이완, 독일 뮌헨과의 작가 교류 사업도 진행한다.

그밖에 올해는 미술관 대학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문화강좌, 작가와의 만남, 미술관런치박스 등 전시와 연계된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또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로비에 아트숍을 조성하고 열린 공간의 미술관 북카페형 자료실도 오픈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은용 작 '원행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곡 '눈 오는 밤에' 배워요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 '신년음악회'

12일 오후 7시 농성동 예총방울소리공연장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105회 공연 '신년음악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린다.

이 날 공연에서 배울 노래는 박이재 작곡, 엄원용 작사 '눈 오는 밤에'이며 주제는 '하이안 그리움이 쏟아져 내리는 밤'으로 가사의 첫 부분이다.

다 함께 부르는 추억의 노래로는 동요 '겨울나무'를 시작으로 누구에게나 가곡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언덕에서', '옛 동산에 올라'를 선보인다.

이어 겨울 정취가 물씬 나는 '눈', '겨울강', '고향의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사랑의 노래로 '그리운 마음'과 새해 첫출발을 알리는 '희망의 나라로'를 부른다.

꿈나무 연주로는 김소민(우리초 1)이 '동보새'와 '목련'을 선보이며 살레시오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민들레리더중창단'은 '아기공'과 '땃쟁이 할아버지'를 무대에 올린다. 남신, 문명수, 박송미, 김선희, 김종석, 봉필수 씨 등이 연주자로 참여한다.

시낭송은 남송가 고미선이 허형만의 '겨울 들판을 거닐며'를 낭송한다. 초청연주로는 소프라노 윤한나가 윤이상의 '고풍의상', 이원주의 '베를레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소프라노 윤한나

잔잔한 울림 주는 무지개 농군의 시학

해남 출신 오형록 시인 '꼭지 따던 날' 시집 내

무지개 농군이 일군 일상의 시학이 잔잔한 울림을 준다.

2014년 '열린시학'으로 등단한 오형록 시인(56)이 최근 '꼭지 따던 날'(문학들·사진)을 펴냈다.

고향 해남에서 손수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쓴 시를 엮은 작품집은 향토적 서정성과 평화로운 농촌의 일상이 가득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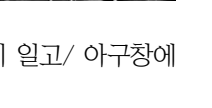
"떨떨떨 몸 둘 바를 몰라 하더니/ 아삭아삭 부서져 내리는 옥신/ 감전된 햇바닥에 돌개바람이 일고/ 아구창에 실개천이 생겼다."("밭도둑" 중)

'밭도둑'은 밤 한 손가락에 갓 수확한 고추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느낌을 형상화한 시다. 생동감을 넘어서서 어느새 입안 가득 찹이 고이게 만든다. 또한 봄비에 흠뻑 젖은 쪽파의 "백옥 같은 엉덩이"에 반해 "살금살금 다가가 덩실 보쌈"을 해버렸다는 시 '쪽파'는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든다.

또한 '다랑이 논둑의 담쟁이'에서는 "오랜 세월 모진 시련을 이겨 낸/ 수많은 상처"들을 읽어낸다. 나아가 "비록 자신의 뜻을 거스른 다 해도/ 한 번 잡은 손은 삶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놓는 법이 없다"는 구절은 시인의 필필미와 일상을 집약하게 한다.

오형록 시인은 시를 쓰기 이전에 농사를 짓는 농군이다. 시인이나 농부나 의미 있는 생산을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림에도 불모지를 생명의 땅으로 바꾼다는 면에서 '창조적인 사유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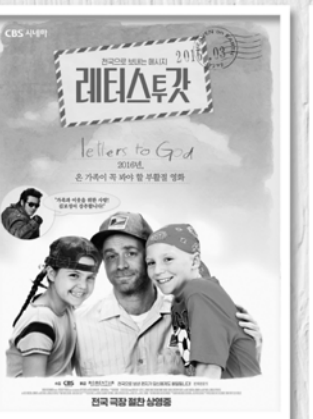
한편 오형록 시인은 2014년 '열린시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붉은 심장의 용알이', '오늘밤엔 달도 없습디다'를 펴냈으며 현재 '시아문학'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CBS Media Group

기독교영화 전문사이트 CBSCINEMA.COM OPEN

런칭기념 이벤트! 하나, 지금 회원가입하면 영화무료이용권 1매를 드립니다. / 둘, 3명 이상의 추천인으로 등록된 총 100분께 아메리카노 2잔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www.cbscinema.com)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원하는 영화 선택 ▶ '구매하기' 버튼 클릭하여 이용권 구매 ▶ 영화관람

이용요금 3,000원

이용권 선물

영화 이용권을 특정인에게 선물하거나 불특정 이용자를 위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CBS 시네마극 Tel. 02) 2650-7942(친구사이) E-mail. cbscinema@cbs.co.kr